

古小說의 研究視角에 對한 再考*

曹壽鶴

〈차례〉

- | | |
|------------|----------------|
| I. 머릿말 | 3. 志體의 특성 |
| II. 문체의 특성 | 4. 文體가 애매한 고소설 |
| 1. 傳體의 특성 | III. 맷는 말 |
| 2. 記體의 특성 | |

I. 머릿말

우리 古小說에 대한 근대적인 논의가 시작된지도 약 1세기에 가까운 역사가 쌓여 왔다. 그간의 연구사를 마지막으로 집약시킨 결정체는 아무래도 중,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세기 도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이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점검해 보는 것은 그 意義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이 좁아서 검토할 수 있는 분야도 국문학 고전소설 분야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될 범위도 역시 국문학 고전소설 분야에 한정된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서 2-1 '6 문학 이야기' 단원 중 이병주가 쓴 (1) 국문학(國文學) 이야기, '소설' 조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이 논문은 199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집필된 것임.

2 嶺南語文學(第22輯)

.....교과서 4 줄 생략.....

고대 소설은 설화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이 많다.

고대 소설의 짜임은 대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였다는 일대기(一代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문체는 알기 쉽고 읽기 좋게 꾸며진 것이 대부분이다. 내용은 가정 생활, 남녀 간의 사랑, 전쟁, 그리고 꿈 등 다양 하지만, 착한 사람은 복(福)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입는다는 점, 마지막이 주인공의 소원 성취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공통적(共通的)이다.

허균(許筠)의 ‘홍길동전’, 김만중(金萬重)의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射氏南征記)’, 지은 이를 알 수 없는 ‘임진록(壬辰錄)’을 비롯하여 ‘춘향전(春香傳)’, ‘심청전(沈清傳)’, ‘홍부전’, ‘토끼전’, ‘조웅전(趙雄傳)’ 등이 많이 읽혀진 작품이다. 이 중에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설도 있다.

한편, 한문소설은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시초이며, 박지원(朴趾源)의 ‘양반전(兩班傳)’, ‘허생전(許生傳)’ 등이 있다.¹⁾

고등 학교 국어 2 ‘8 국문학의 이해’ 단원 중에 조윤제가 쓴 (1) 고전문학(古典文學史), (2) 소설(小說)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는 이러한 배경(背景)에서 나타난 작품이다.²⁾

1) 「중학 국어」 2-1, 한국교육개발원 편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발행, 1991년 판. 그리고 같은 책, 1990년 판에는 윗글 제1행 ‘형성된 것이 많다.’가 ‘생겨났다.’로 되어 있고, 여타 부분은 다른 것이 없다. 면수도 같다. 또 같은 책, 1987년 판은 ‘형성된 것이 많다.’가 “여러 입을 거쳐 대대로 전해 오면서 생겨났는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홍길동전(洪吉童傳)’이 그 최초의 작품이다.”가 삽입되어 있고, 또 둘째 줄 셋째 날말 ‘짜임은’이 ‘짜임새는’으로 되어 있고 여타 부분은 같다.

2) 고등 학교 「국어」 2, 한국교육개발원 편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발행, p. 166, 1989년 판. 그리고 같은 책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2, 소설 조에도 전문이 모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고등 학교 「고전 문학」 '7. 이야기 문학의 전개' 단원, '만복사저포놀이(萬福寺櫓浦記)'의 '출전'조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금오신화(金繫新話) : 우리 나라 최초의 본격적 한문 단편 소설집.³⁾

위와 같은 종래의 우리 고소설에 대한 견해는 그 근본적인 視角에 있어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 첫째는 고소설 발생 始期에 대한 당시 국제적 균형을⁴⁾ 상실한 문제이고, 둘째는 동양 한문 文體(장르)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들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문제는 민족문화 발전의 척도가 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이에 대하여는 3, 4명의 학자가 이미 70년대에 그 시정을 시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므로⁵⁾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키로 하고, 둘째 한문의 문체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부작용중에서,

(1) 종래 널리 써왔던 '假傳體'는 문체 파악을 잘못한 결과이며, 따라

3) 김동욱, 김태준 지은 고등학교 「고전 문학」 동아출판사 간, pp. 107-108, 1985년 초판 발행, 1990년 발행.

4) 중국의 唐나라 '傳奇' 소설의 발생이 7세기 일본의 '物語' 소설의 발생이 9-10 세기에 발생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당연히 7~8세기에 '傳奇' 소설이 발생하는 것이 문화전파(刺戟傳播說)의 公道에 맞는 것이다. 그 증거가 될만한 현존 작품으로는 古本 「殊異傳」, 신라 「수이전」 등의 逸文에 '心火繞塔', '金現惑虎', '首搏石耕', '崔致遠' 등이 남아 있고, 「삼국유사」의 '調信' 夢生이나 「삼국사기」의 '溫達傳'을 비롯한 '都彌傳', '薛氏女傳' 등 10여편이 거론되고 있음.

5) 池俊模 ;〈傳記小說의 嘴矢는 新羅에 있다.〉, 「韓國語文學」 제32집, 1975년.

曹壽鶴 ;〈崔致遠傳〉의 小說性〉, 「嶺南語文學」 제2집 1975년.

林榮澤 ;〈羅末麗初의 '傳奇' 文學〉,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1980년.

서 그 개념 파악마저도 잘못되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발표한, 졸고 〈假傳文學研究〉(1972년) 이래 약 10년간의 논란 끝에 이제는 거의 傳의 4종(史傳, 托傳, 家傳, 假傳)의 하나인 ‘假傳’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키로 한다.

(2) 1919년 日本人 사학자 今西龍의 〈新羅殊異傳及其逸文〉에서 “이를 同名異書로 인정하기보다는 同一書로 인정하고……” 운운한 이래 약 1세기에 가까운 著者 是非에 대하여는 아직 반응은 없으나, 이미 졸고 〈殊異傳의 著述者 및 文體考〉⁶⁾에서 「수이전」은 個別傳이 아니고 類別傳이기 때문에 작가 시비는 무의미한 논쟁임을 밝혔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생략키로 한다.

(3) ‘傳’의 성질상, 한 특징인 표창성이나 모범성 때문에 한자 문학권에서는 自敍傳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간절한 내부 사정 때문에 부득이 자기의 전을 써야 할 경우에는 假定의 제3자에 가탁하는 수법으로 지어지는 自托傳과, 또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 견해 등을 寓意적 수법으로 풍자하기 위하여 지어지는 意托傳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졸고 〈儒夫傳의 托傳性〉⁷⁾(1973년), 〈托傳 小考〉⁸⁾(1983년), 「韓國의 托傳과 假傳」⁹⁾ 등에서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 “짜임은 대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였다는 일대기(一代記) 형식으로 되어 있고,”

2) “착한 사람은 복(福)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6) 조수학; 〈殊異傳의 著述者 및 文體考〉, 「영남어문학」 제17집, 1990년.

7) 조수학; 〈儒夫傳의 托傳性〉, 영남대 「국어국문학」 15집, 1973년.

8) 조수학; 〈托傳小說〉, 영남대 「인문연구」 4집, 1983년.

9) 조수학; 「韓國의 托傳과 假傳」, 영남대 출판부, 1987년.

입는다.”

- 3) “마지막이 주인공의 소원 성취로 마무리된다는 점은 공통적(共通的)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문체적 속성에 대하여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고소설의 가치를 格下시키는 말을 국문학자의 손으로 국정 교과서에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설이란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어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양 한문 문체 갈래에 있어서 ‘傳’의 특징에서 온 것이라고 해명하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고소설 가운데서도 ‘記’체계 소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한 마디도 밝히지 않고, 그것이 마치 우리 고소설의 전부인 냥 그대로 ‘공통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는 곧 우리의 고소설 전부가 ‘불만한 것이 없다’, 또는 ‘싫증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된다. 이를 한 술 더떠서 말하는 자들은 흔히 위의 1)은 ‘호적등본과 같다’느니, 2)와 3)은 ‘千篇一律의 勸善懲惡의 주제와 행복한 결말’이니, 하는 등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거나와, 이와 같은 격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의 고소설은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傳體類 소설에서나 해당되는 말이지, 記體類, 즉 〈만복사저포기〉, 〈수성지〉, 〈수성궁몽유록〉, 〈임진록〉, 〈구운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류 소설의 경우도 이와 같은 格下스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전’ 문체의 특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문체적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평시하는 말로 일관된 것은 아무래도 편향된 서구식 초기 국문 학자들¹⁰⁾의 고소설을 보는 시각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0) 초기 국문학자들 : 주로 1985년 광복을 전후한 시기에 서구 근대식 문학연구 방법으로 국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을 말함. 그들은 주로 일본 유학을 통해서 공부하였거나 아니면 국내 대학에서 일본인이 우리 국문학을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수학한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문체 갈래의 특징을 논한 고전들을 살펴서, 그것이 우리 고소설과의 연계성 여부를 살펴 보고, 또한 우리 고소설의 제목과 내용으로 봐서 고소설의 문체적 성격이 瞬昧模糊한 몇 가지 사례를 해설함으로써 종래 잘못된 고소설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아 대부분의 국문 학자들로 하여금 송구하오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고소설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문체의 특성

古小說이 지어지던 時代는 그것이 비록 漢文이 아닌 國文으로 지어진 小說이라 하더라도 그 文體는 한문 문체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漢文 문체의 발달은 그 실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明, 徐師曾의 「文體明辨」에서는 문체의 종류를 127종류를 들어 그 유래, 형식, 내용, 목적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중 16종이 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111 종류가 산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옛 漢字文化圈에서는 어떤 문장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문체의 갈래에 맞게 글을 짓어야만 하였다. 만약에 이 문체에 어긋나는 문장을 짓었다면, 그 문장은 文辭가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문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吳訥의 「文章辨體」, 「諸儒總論作文法」에서나, 서사증의 「문체명변」, 「文章綱領, 總論」 등에서 한결같이 宋나라 倪思¹¹⁾의 다음과 같은 文章綱領을 그들 책의 첫 머리에 들고 있다.

文章以體製爲先 精工次之 失其體製 雖浮聲切響 抽黃對白 極其精工 不可爲之文。

학자이며, 그들의 지향점은 서둘러 구식, 즉 한문학의 잔재를 불식하고 오로지 서구식 이론과 방법 및 용어를 도입, 구사하는 것을 능사로 여긴 학자들임.

11) 宋, 光宗時, 禮部尚書, 著書 齊山甲乙稿, 兼山集, 經祖堂雜志, 謂 文節.

즉 “문장은 체제를 먼저 갖추어야 하고 정교한 솜씨는 다음 문제다. 만약에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비록 聲律과 對偶法이 지극히 정교하다 하더라도 문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다.

이와 같이 강조한 이유는 아마 당시에도 체제, 즉 문장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작품이 간혹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¹²⁾ 따라서 그와 같은 현상은 古小說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이생규장전」이나 「사씨 남정기」 등은 ‘기’체와 ‘전’체가 복합한 작품이며, 「운영전」은 ‘몽유록’의 형식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으로 제목의 문체를 잘못 변경해 버렸다. 그러나 한편 각도를 달리하여 생각해 보면, 소설의 종합문학적 성격과 실용적인 한문이 餘技的인 소설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탈 형식적인 문체의 변혁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고소설의 문체는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과 같은 傳體系 소설과, 「만복사저포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임진록」, 「수성궁몽유록」, 「구운몽」 등과 같은 記體系 소설로 二大別되는데, 이 ‘기’ 체계 소설은 그 문체적 성격이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서구식 初期 국문 학자들이 그 성격 과악을 소홀히 한 채, 서둘러 서구식 이론에 접목시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우리 고소설의 가치를 많이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고소설과 관련이 있는 한문 文體의 特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12) 그러한 實例는 小中華를 자랑하던 조선시대의 문인들 중에서도 가끔 보인다. 千萬里, 李弘仁같은 상당한 문장이나 신분이 지존이요 뛰어난 문필가인 영조대왕마저도 그들의 자서전 제목에 절대로 ‘傳’자를 붙이지 않고, 다만 思庵自敍, 月湖自敍, 御製自醒翁自敍 등으로 傳의 褒貶性을 굳게 인식하고 문장강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權益昌의 湖陽子自傳이나 金昌喜의 溪園退士自傳과 같은 탈법자가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1. 傳體의 특성

按字書云：(1) 「傳者，傳(平聲)也，(2) 紀載事迹以傳於後世.」(3) 自漢司馬遷作史記，創爲「列傳」(4) 以記一人之始終，(5) 而後世史家卒莫能易 (6) 習是山林里巷，或有隱德而弗彰，或有細人而可法，則皆爲之作傳 以傳其事，(7) 寓其意；(8) 而馳騁文墨者，間以滑(音骨)稽之術雜焉，皆傳體也。(9) 故今辨而列之，其品有四：一曰史傳(有正·變二體)，二曰家傳，三曰托傳，四曰假傳，使作者有考焉。¹³⁾

이를 요약하여 분석해 보면,

(1), (2), (4)에서는 “일인의 사적을 적어 후세에 전한다”는 ‘전’의 個人中心性과 傳達性을 말한 것이며,

(3)은 ‘전’이 嘻失가 漢나라 司馬遷의 「史記」列傳이라는 것이며, (5)는 후세 史家가 끝내 이 문체를 바꾸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7), (8), (9)번을 감안해 보면, 이 ‘史家’란 말은 모든 傳 작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6)은 따라서 시골의 미세한 사람도 隱德이 표창되지 못하면, 그 模範의인 사례를 적어 세상에 전한다는 뜻으로 ‘전’의 表彰性과 模範性을 말한 것이며,

(7)은 托傳을 말한 것이요, (8)은 假傳을 말한 것이며, (9)는 ‘전’의 4체를 말한 것이다.

(7),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1)~(6)까지의 조건은, 비록 소설적

13) 徐師曾：「文體明辨」序說 傳, p. 154, 長安出版社 발행, 1979년.

明, 吳訥의 「文章辨體」序說에도 ‘전’에 관한 해설이 있으나, 이와 대동소이함으로 생략함.

* (1)~(9)의 번호는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필자가 붙인 것임.

인 구성과 허구화의 과정을 거친 소설의 ‘전’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특히 (6)번은 “시골의 미세한 사람이라도 음덕이 있으면 이를 표창하고 모범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고소설에서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그 예로서 ‘춘향’의 신분이 미세한 기생의 딸이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열녀’를 행하였다는 점, ‘심청’이 불우한 봉사의 딸이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효를 행하였다는 점, ‘홍길동’의 신분이 서자이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우리 고소설의 주제가 비록 勸善懲惡의 주제와 幸福한 결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이란 문체적 속성을 이어 받은 ‘전’체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동양 한문 문체의 특수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국문 학자들이, 그것을 무슨 큰 허물이나 잡은 듯이 犷視하는 어조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장하여 ‘千篇一律’이라고까지 針小棒大하고 있는 우리 국문 학자들의 그동안의 실적이 참으로 안타깝다.

약간만 시각을 돌려보자. 梁生이 귀녀와 혼인의 절차 없이 교혼한 「만복사저포기」나, 궁녀와 書生이 눈이 맞아서 밤마다 담을 넘어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가 끝내 자살하게 되는 「수성궁몽유록」이나, 팔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꿈을 깨고 나서 허탈감에 빠지는 「구운몽」과 같은 우리의 대표적인 고소설이 엄연히 있는데, 이를 모른 체 하고, 한 데 싸잡아서 ‘천편일률적’인 ‘권선징악’이니 ‘행복한 결말’이니 하

14) 근자에 傳을 교술문학 갈래로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전’은 전이고 ‘소설’은 소설이다.”라고 그 連繫性을 극구 부인하려 하는 학자가 있는데, ‘전’은 서구의 전기(biography)와 거의 같은 문장 갈래에 속하며, 그들의 전기는 이미 敘事 갈래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전인 「柳淵傳」이 이항복에 의하여 소설적 ‘전’으로 재구성된 사실을 입증한 논문(박희병;〈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1991년) 등을 고려하여 ‘전’과 ‘전체소설’의 연계성에 대하여 再考 있기를 바란다.

는 것은 ‘殖民文學觀’이 아니라고 보기 가 참으로 어렵다.

2. 記體의 特성

金石例云：(1)『記者，紀事之文也。』西山曰：『記以善敍事爲主。』(2)禹貢，顧命，乃記之祖。(3)後人作記，未免雜以議論。』后山亦曰：『退之作記，記其事耳；今之記，乃論也。』竊嘗考之：(4)記之名，始於戴記學記等篇。(5)記之文，文選佛載。(6)後之作者，固以韓退之畫記，柳子厚遊山諸記爲體之正。(7)然觀韓之燕喜亭記，亦微載議論於中。(8)至柳之記新堂，鐵爐步，則議論之辭多矣。迨至歐蘇而後，始專有以論議爲記者，宜乎后山諸老以是爲言也。(9)大抵記者，蓋所以備不忘，如記營建，當記日月之久近，工費之多少，主佐之姓名，敍事之後，略作議論以結之，此爲正體。(10)至若范文正公之記嚴祠，歐陽文忠公之記畫錦堂，蘇東坡之記山房藏書，張文潛之記進學齋，晦翁之作婺源書閣記，雖專尚議論，然其言足以垂世而立教，弗害爲體之變也。學者以是求之，則必有以得之矣¹⁵⁾

이를 요약하여 분석해 보면,

- (1)에서는 ‘기’는 본래 事件을 記錄하는 글이며, 敍事を 위주로 삼는다는 것이며, (2), (4)에서는 ‘기’문의 유래를 말한 것이며,
- (3), (7), (8), (10)은 ‘기’문에 의론이 가미되기 시작하여 점차 議論化하여도 ‘기’문체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며,
- (5)는 「文選」에 ‘기’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는 「문선」이 지어지던 六朝시대까지는 ‘기’문이 성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 (6)은 ‘기’문의 正體는 唐代 韓愈와 柳宗元에 의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15) 吳 訥：「文章辨體序說」‘記’，pp. 41–42，長安出版社 刊，1978년。

明，서사증의 「문체명변」 서설에도 ‘기’에 대한 해설이 있으나, 이와 대동소이함으로 생략함。

* (1)~(10)의 번호는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필자가 붙인 것임。

는 것이며, (9)는 ‘기’ 正體의 대체적인 概念은 “잊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건축이나 영조물에 대한 기록으로서 건조한 月, 日, 工費, 찬조자의 姓名 등 사건을 기록하고, 간단 意義를 적어서 결말 짓는 것이 정체다.”라는 것이다.

위의 (5)에서는 「문선」에 ‘기’에 관한 작품이 없음을 말하였는데, 「문체명변」 서설에서는 「載記」, 「學記」 이후에 漢, 揚雄의 「蜀記」가 있었으나, 劉협의 「文心雕龍」에도 해설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가원은 ‘기’의 가장 오래된 것은 漢 樊彥(?)의 「修西嶽廟記」가 있다.¹⁶⁾고 하였다.

그리고 「문체명변」 서설이나 「문장변체」 서설에서 들고 있는 실제 작품명 들은 대개가 영조물에 관한 것이지마는, 「문장변체」 서설의 (6)에서 든 柳子厚의 「遊山諸記」(「遊黃溪記」, 「始得西山宴遊記」, 「柳州山水近始可遊記」)는 紀行文의 ‘기’에 속하고, 「문체명변」 서설에서 들고 있는 양웅의 「총기」는 지방에 관한 ‘기’에 속하는 것으로 ‘기’ 문체의 주류를 이루는 영조물에 관한 기록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 외에 晉, 陶潛의 「桃花源記」도 지방에 관한 ‘기’ 문에 속한다.¹⁷⁾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기’라는 문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禮記」의 제편과 같은 어떤 일에 관한 理論과 實例를 기록한 것과, 둘째 亭, 廟, 樓, 臺, 城, 橋와 같은 ‘營造物’에 관한 기록과, 셋째 「총기」, 「도화원기」와 같은 어떤 ‘地方’에 관한 기록과, 넷째 「遊山諸記」와 같은 ‘紀行文’의 ‘기’로 대별된다. 이 밖에도 ‘山水’와 같은 자연물에 관한 ‘기’도 있으나, 이는 그 속성이 좀 애매하지만 일단 그 성질은 ‘지방’과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6) 李家源: 「韓文學研究」漢文文體研究, 雜記類, p.644, 探求堂 발행, 1969년.

17) 「桃花源記」는 ‘기행문’ ‘기’로 볼 수도 있으나, 글의 주제가 ‘도화원’이라는 理想鄉에 있으므로 「총기」와 같은 지방에 관한 ‘기’로 처리하였음.

이와 같이 四分된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는 특별한 문체를 의식하지 않고 다만 ‘기록’이란 뜻에서 쓰여지다가 점차 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정리되는 과정에서 ‘영조물’에 관한 ‘기’로 집중되고, 어떤 일에 대한 이론과 실례는 각종 일기나 언행록과 같이 ‘기’로 남아 있기도 하고, ‘錄’으로 변하기도 하였고, 기행문에 관한 것은 거의 ‘록’으로 변하였으며, 지방에 관한 것은 「漢書」十志 아래 거의 ‘지’로 정착된 것이라 생각된다.

3. 志體의 특성

錄에 관한 문체적 해설을 한 글은 찾지 못하였고, 「集韻」에는 ‘錄；記也’로 되어 있고, 「正字通」에는 ‘騰寫曰 錄’이라 되어 있으며, 「문체명변」서설의 ‘志’조에서는

按字書云：(1)「志者，記也，字亦作誌。」(2)其名起於「漢書」十志，而後人因之，(3)大抵記事之作也。(4)諸集不多見，故採一首錄之。(5)他如墓誌，別爲一類，此不概列云。¹⁸⁾

라고 하였으니, 이를 분석하여 요약해 보면,

(1), (3)의 경우와, 앞의 字書들의 ‘록’에 대한 풀이를 종합해 보면 記, 錄, 志는 모두 공통적으로 ‘記事之文’에 속하게 된다.

(2)에서 ‘志’의 독립된 문체는 「漢書」十志를 들고 있다. 「한서」십지는 律歷, 禮樂, 刑法, 食貨, 郊祀, 天文, 五行, 地理, 溝洫, 藝文 등인데, 그중 地理志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의 4종에서 托傳은 현재까지 우리 고전에서 발견된 것은 自托傳이 약 33편, 意托傳이 약 10편 정도인데, 그중 소설화한 것은

18) 서 사증 : 「문체명변」서설, 志, 장안출판사 발행, p. 146, 1978년.

* (1)~(5)의 번호는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필자가 붙인 것임.

鄭璣淵(1877~1952)의 「二耕傳」¹⁹⁾ 한 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家傳으로는 「星主高氏家傳」이나 「鄭氏家傳」 등 상당한 이야기끼리의 작품이 있으나, 이는 家乘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설로 취급할 수는 없고, 假傳에 대하여는 김우옹의 「天君傳」을 비롯한 대작의 心性系 소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설은 우리 고소설의 본령은 아니고 지류에 속한다.

우리 고소설의 본령은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기'계통의 소설과 史傳의 형식을 이은 '전'계통의 소설로 봐야 할 것이다. '기'계통의 소설은 복잡하게 분화하여 「수성궁몽유록」, 「구운몽」, 「옥루몽」이 여기에 속하며, '전'체계 소설은 正史 列傳과 같은 公史傳 보다는 剩餘文人们의 私史傳²⁰⁾ 쪽으로 맥이 닿아 있으며, 대개 虛構化된 것이 많다.²¹⁾ 그 실례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이 이에 속한다.

文體	選集名	營造物	地方·山川	遊行	人物	行事, 其他	計
記	唐宋八家文	38	13	3	2	2	58
	古文眞寶	16	1			2	19
	東文選	255	22	4	1	21	303
	嶺南文苑	778	34		6	14	832
錄	東文, 嶺南			14			14
計		1087	70	21	9	39	1,226

19) 鄭璣淵: 「二耕傳」은 동서양의 문화를, 벼를 경작하는 농부와 피를 경작하는 농부에 寓意한 風刺소설임.

20) 私史傳을 두고 '私傳'이라 일컫는 論者가 있으나, 이를 단순히 '사전'이라고만 한다면, 托전, 家전, 假전이 다 사전이지 공전은 아니므로 意味區分이 서지 않는다.

21) 비록 실제 인물인 '홍길동'이나 '춘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델화한 것이지 실화 그대로라고는 볼 수 없다는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 記, 志, 錄의 공통점은 ‘記事之文’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역사를 거치고 많은 작품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점차 특색이 갈려지게 되었다. 그 과정을 중국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장選集들에서 작품을 모아 이를 통계처리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윗 표와 같이 도표화해 둔다.

윗표 1,226편 가운데 1,087편이 영조물에 관한 것이니 이는 ‘기’문체의 중심내용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지방, 산천에 관한 것이 70편으로 나와 있지만 지방에 관한 것은 10편 미만이었음을 밝혀 둔다. 그 이유는 아마 漢代의 「蜀記」와 晉代의 「桃花源記」가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은 「漢書」 십지 이후에 모두 이를 따라 ‘지’문체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송팔가문」과 「동문선」을 합하여 7편 정도 있었던 ‘遊行’ 즉 기행문의 ‘기’가 같은 「동문선」에서 비로소 ‘록’편이 설정되어 ‘00록’으로 옮겨진 것이 7편이 실려 있고, 「영남문원」의 ‘기’편에 거의 ‘기행문’이 나타나지 않은 대신에 같은 책 ‘록’편에 ‘00록’ 7편이 나타나서 ‘기행록’이 합하여 14편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아도 대부분의 ‘기행문’의 ‘기’는 ‘록’으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겪어서 우리 고소설의 문체에서는 「만복사 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있었던 저포놀이, 즉 행사에 근거하여 ‘기’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저포놀이는 鬼女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이는 수법은 근대적인 소설의 제목을 붙이는 수법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다. 다른 것은 ‘기’라는 문제명이 붙었을 뿐인다. 그리고 「취유부벽정기」는 ‘술에 취하여 부벽정에 노닌다.’라는 뜻으로 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장소를 나타낸 ‘기’이다. 이는 중국의 「침중기」나 「서유기」 계통의 소설 문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씨남정기」와 같은 복합체는 다음에 언급키로 한다.

「南炎浮州志」는 중국의 「삼국지」, 「수호지」 등과 같은 어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붙여진 제목으로, 이는 곧 ‘史書’의 地理志의 형식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계통을 이어 假文으로 허구화한 것으로는 林悌의 「愁城誌」와 같은 假志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모두 ‘기’체 소설의 범위에 속한다.

「용궁부연록」은 龍宮에 초대 받아 다녀온 일종의 기행문인데 이는 ‘록’문체의 형식을 빌려온 소설로 단독적으로는 ‘록’체 소설이나 역시 넓은 의미로는 ‘기’체 소설에 속한다. 이를 이어 발생한 ‘00몽유록’은 현재 발견된 것만도 약 10편 정도 되는데, 이들은 대개 꿈의 형식을 빌려서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곳을 다녀 오는 기행록이다.

「구운몽」, 「옥루몽」과 같은 몽자류 소설은 ‘00기’, ‘00록’ 등에서 특히 꿈이라는 상상의 세계에 작자의 의도하는 촛점이 맞추어질 때, 이를 강조한 나머지 ‘몽’이라는 새로운 문체를 파생시킨 것이다. 즉 唐代의 전기 소설인 「枕中記」가 元代에 와서는 「黃梁夢」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몽’자 소설도 역시 넓은 의미로는 ‘기’체계 소설의 범위로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고소설의 ‘기’ ‘지’ ‘록’ ‘몽’은 비록 작품의 내용에는 변화와 허구를 가했지만, 문체는 역시 이 계통을 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징을 감안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몽’은 완전히 허구적 상상력을 강조한 소설 본래의 창의성에 의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작품의 수는 적지만 「구운몽」과 같은 걸작과, 양적, 질적으로 우리 고소설에 있어서 대표적인 大河小說인 「옥인몽」, 「옥루몽」 등, 본격적인 우리 고소설은 오히려 이 ‘몽’자류 소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무슨 勸善懲惡의 주제나 행복한 결말 등 자기 格下의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짜임은 대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였다는 一代記 형식으로 되어 있고”란 말도 기체계 소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은 ‘南原有梁生者 早喪父母……’로 시작하며,²²⁾ 「수성궁동유록」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몽유록’ 소설에도 주인공의 출생담이 없으며, 「구운몽」의 첫 머리는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고, 꿈속의 주인공 양소유의 출생담은 있어도 주제의 주인공인 성진은 출생담은 없다.

또 이 ‘일대기 형식’이란 말에는 “결구가 순행적 단순구성으로 되어 재미가 없다”라는 폄시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체 계통의 소설은 공간적으로는 현실계와 몽환계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주인공은 반드시 현실계에서 몽환계를 갔다가 돌아 오는 往環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특히 ‘몽유록’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邇上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 오는 逆順行 과정을 거치게 되며, 또한 이때 시간과 공간은 자유롭게 현실계를 축소하고 몽환계를 확대한다.

여기에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2-1’의 고전 소설에 관한 定義에는 이 ‘기’계통의 소설은 처음부터 제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문체가 애매한 고소설

근대 편향된 서구식 초기 국문 학자들이 동양 한문 문체의 의미를 소홀하게 취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조건 낡은 구학문, 즉 한문학의 티를 벗어나서 서구식 신문학의 흉내라도 낼려고 서두른 나머지 그만 거기에 몰입해 버린 탓이 크겠지만, 한편 1970년대부터 점차 우리의 전통 문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²³⁾ 후에도 쉽사리 고소설의 문체에 관심

²²⁾ 「금오신화」 5편 모두 주인공의 출생담이 없음.

을 돌리지 못한 것은 우리 고소설의 문체적 제목과 내용이 애매모호한 복합된 것이 있다는 사실도 판파할 수 없다.

첫째 「壽城宮夢遊錄」과 「雲英傳」의 경우처럼, 거의 같은 내용의 소설을 두고 그 제목만을 문체적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과, 둘째 「李生窺牆傳」이나 「謝氏南征記」와 같이 ‘記’가 되어야 할 제목과 ‘傳’이 되어야 할 제목이 복합한 것과, 셋째 「彰善感義錄」과 같이 ‘전’이 되어야 할 권선징악의 내용에 제목은 ‘록’으로 붙인 것과, 넷째 「殊異傳」, 「滑稽傳」, 「高僧傳」과 같은 類別傳의 경우는 個別傳에 비추어 볼 때 제목 자체가 고소설의 문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가져 왔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한문 문체의 성격을 이해한 위에서 그 원인을 관찰하여 보면, 첫째 「壽城宮夢遊錄」은 분명히 사건을 중심으로 한 몽유록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好事家가 소설을 轉寫하는 과정에서 문체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주인공 雲英의 애끓는 사연에 몰입한 나머지 그만 인물 중심의 「雲英傳」으로 잘못 便稱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閑中漫錄」을 연구하는 초기 국문학자의 한 사람이 원한에 사무친 혜경궁 흥씨의 애끓는 사연에 몰입한 나머지 恣意的으로 글의 제목을 원한의 ‘恨中錄’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를 혜아리지 못한 후속 연구자는 오히려 ‘閑中漫錄’을 一名으로 처리한 사연과 비슷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李生窺牆傳」은 「李生傳」과 「窺牆記」를 합친 내용의 제목이다. 말의 순서에 따른다면 「이생규장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생’이란 인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생규장전」으로 처리한 것이라 믿어지고, 「射氏南

23) 한문 문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72년에拙稿〈假傳文學研究〉를 비롯해서 1974년에 安秉高의 〈한국가전문학연구〉, 1985년 金昌龍의 〈韓中假傳文學研究〉 등에 의하여 발표된 수십 편의 ‘가전’에 대한 연구 논문은 모두 한문 문체를 바탕으로 논하게 된 것이며, 특히 1976년의 좁고 〈古小說文體敎〉는 본격적인 고소설 문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본다.

征記」는 ‘사씨전’과 ‘남정기’가 복합한 것으로, 곧 인물과 사건이 반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의 순서에 따라 ‘記’문체를 택한 것으로 믿어진다.

셋째 「彰善感義錄」은 善을 표창하고 義理에 감동한다는 권선의 뜻이므로 인명을 제목으로 할 경우에는 틀림 없이 ‘00전’이 되어야 하겠지만, 작자의 의도가 ‘권선’과 ‘의리’에 집중된 결과 사건적인 제목을 택한 것으로 믿어지며, 문체는 ‘記’를 택할 수도 있지만 어감에 따라 ‘錄’을 택한 듯하다. 만약 ‘記’를 택한다면 ‘창선감의기’가 되어서 ‘의’와 ‘기’ 사이에는 비록 ‘-’이 개입하기는 했지만 母音衝突(hiatus)을 회피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회피하기 위하여 ‘록’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錄’은 본래 ‘記’에서 파생한 문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00實錄’이나 ‘00實記’처럼 혼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넷째 「殊異傳」의 逸文 중 완전한 전기소설인 「최치원전」은 비록 ‘전’ 자를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一人之事迹’, 즉 개인 중심이란 ‘전’의 기본 조건 이외에 내용상으로 포폄성, 교훈성, 모범성 등 ‘전’의 성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최치원’이란 인명과 「수이전」이란 책의 제목에 따라 「최치원전」이란 ‘전’자를 쓰고 있지만²⁴⁾, 원래의 제목은 「최치원」이라고만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이전」은 「골계전」이나 「고승전」과 같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類別傳임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본인 사학자 今西龍이 1919년에 〈新羅殊異傳及 其逸文〉이란 글에서 “책은 同一書로 보고 著者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는 것”이라고 발표한 아래, 이를 教條의 으로 신봉하는 국문 학자(?)들이, 우리의 고전들에 엄연히 ‘최치원 「수이전」’이니, ‘박인랑 「수이전」’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록을 보고서도, 今西씨의 無思慮한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 고전들의 기록을 무시하고 「수이전」의 작자는 박인량이

24) 拙稿: 〈崔致遠傳의 小說性〉, 「영남어문학」 제2집, 영남어문학회 간, 1975 외 다수 있음.

다.' 또는 '최치원이다.' 혹은 '김척명이다.'하고 그중 어느 한 사람으로 고집하여 1세기가 다 가도록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가 「수이전」의 유별성을 밝힌 바 있다.²⁵⁾

위와 같은 몇 가지 고소설 문체의 혼란된 형식을 감안해 본다면, 표면상으로 고소설의 문체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듯 하지만, 시각을 돌려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고찰하여 보면, 열녀의 모범 인물로 「춘향전」을, 효녀의 모범 인물로 「심청전」을, 사회의 부폐를 척결하는 모범 인물로 「홍길동전」 등의 제목이 떳떳하게 붙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처녀의 혼령과 연애한 사건을 두고 '만복사저포전'이라고 한다거나, 「구운몽」에서 팔선녀와 혼인을 맺은 사건을 두고 '구운전'이라고 한다거나, 「임진록」에서 마땅한 주인공이 없다고 해서 '임진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와 같은 내용과 제목에 해당하는 문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체 소설과 '기'체 소설은 그 문체적 특성이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체의 성격을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우리 古小說의 주제는 천편일률적으로 판에 박은 듯이 勸善懲惡의 주제이고 결말은 행복으로 끝난다."²⁶⁾라 하고, 또 「홍길동전」의 '요괴퇴치'부분이나 율도국왕이

25) 출고: 〈「殊異傳」의 著述者 및 文體考〉 「영남어문학」 제17집, 영남어문학회 간, 1990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음.

* 참고: 1972년 摹稿 〈假傳文學研究〉에서 '가전체'를 '가전'으로 수정한 이래 10여년의 논란 끝에 '가전'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상기해 둔다.

26) 金起東: 「韓國古代小說概論」, p. 46 “……古代小說의 主題를 結果의으로 볼 때 勸善懲惡의인 道德問題에 韻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部分의 古代小說에 있어서 登場人物로서 善人과 惡人을 對立시켜 描寫하였다. 善人이 처음에는 惡人에게 가진 苦楚를 격지마는 結末에 가서는 善人이 勝利하고 惡人은 廉憲을 받고 있으며, 結尾에 있어서는 모든 作品이 千篇一律의으로 판에 박은 듯이 主人公의 幸福된 生活을 누리게 되는 幸福으로 끝나고 있다……” 대창문화사 간, 1956.

鄭柱東: 「古代小說論」 p. 75, p. 191, pp. 370-371같은 논조임. 기타 해방 후 초기 국문학자들의 논조는 대개 이와 大同小異함.

되는 부분은 불필요한 사족으로 보는 견해²⁷⁾나, 또 소설의 발생이 문자 보급의 정도에 따른 문화 발달의 척도인 동시에, 개인의 자각에 따른 개인주의적 민주의식 및 개인 인권의 자각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문화 발달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소설이 7~8세기 발생설을 공인하고, 일본의 物語(모모까다리) 문학 발생을 9~10세기 설을 인정하는 우리의 국학자들이 어찌해서 우리의 고소설은 15세기 「금오 신화」가 처음이라고 중학생의 머리에 주입시키고 있는지? 한편 8~9세기 발생으로 추정되는 고본 「수이전」 내지는 신라 「수이전」 등의 逸文 가운데 「최치원」과 같은 분명한 전기소설과 그 원형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충분히 전기소설로 간주할 수 있는 「首押石柵」이나 「心火繞塔」 등의 찬 영과, 「삼국유사」의 「調信」 夢生事²⁸⁾ 및 「金現感虎」²⁹⁾와 「삼국사기」의 「薛氏女」, 「都彌」, 「溫達」 등에서 소설적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쳐사, 등은 우리의 국문학자가 우리 고소설의 가치를 왜곡되게 格下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실로 도리키기 어려운 초기 편향된 서구식 국문학자들의 크나큰 과 오였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근래 몇몇 학자에 의하여 우리 전기소설의 발생을 8~9세를 주장하고 있으나³⁰⁾ 그 반응은

27) 李在秀:「韓國小說研究」, pp. 168~169, 宣明文化社 刊, 1969 와 다수 同調함.

이것 역시 개인의 일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음을 전체로 해야 할 것이다.

28) 池俊模:〈傳記小說의 嘴矢는 新羅에 있다.〉, 「韓國語文學」 제32집, 한국어문화회 간, 1975.

林熒澤:〈羅末麗初의 ‘傳記’ 文學〉,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pp. 89~104, 韓國漢文學研究會 刊, 1981.

29) 林熒澤: 앞의 논문, 車落柱:〈韓國漢文小說史〉같은 논조.

30) 池俊模: 앞의 논문.

줄고:〈「崔致遠傳」의 小說性〉「영남어문학」 제2집 1975.

林熒澤: 앞의 논문.

아주 미미하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초기 국문학자들의 국문학을 연구하는 시각이 너무나 서구식에 편향되었고,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지 문학 사관을 재고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며, 후속 학자들 역시 이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래 우리 학계의 고소설에 대한 연구 시각을 하루 빨리 修正 再考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본고를 시도한다.

III. 맷는 말

우리 고소설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 바탕 위에서 성립하였다. 그 하나는 교훈과 褒貶을 목적으로 하는 傳계통을 이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記계통을 이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志, 錄, 夢 등의 갈래로 세분된다. 이 세분된 고소설에는 각각 그 계통에 따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 학계의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개 일본인 학자를 통하여 전수받은 서구식 로망스나 노벨을 보는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소설에 대한 견해와 평가는 그 본 모습과는 괴리되고, 그 진실된 가치와는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괴리되고 왜곡된 견해와 가치 평가는 2세 국민들에게 왜곡된 그대로 우리 고소설의 주된 모습과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소설의 견해와 가치가 오도된 실제적인 要因은 아마도 한문 문체가 지니는 취지와 목적을 외면해 버린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 한문 문체를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 보면,

- 1) ‘전’의 類別性과 個別性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수이전〉의 작자에

대한 시비가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헛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2) 傳의 4종 가운데 하나인 假傳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이를 ‘가전체’로 이해한 결과, 약 반세기에 걸친 ‘가전체’ 연구는 盲人探象의 우를 범했으며,

3) 記敘열의 소설이 보다 근대적 소설에 가까운 구성과 창의성과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또 대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 고소설의 장점으로 부각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소설에다가 한 데 싸잡아서 평가하는 바람에, 양색진 두 가지 장점을 하나로 뭉쳐서 결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으며,

4) ‘전’ 및 전체 소설의 특징인 개인 중심성, 교훈성, 모범성 등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천편이률적인 권선징악의 주제’이니, ‘시작은 대개 출생담으로부터’라느니, ‘결말은 모두 행복하게’, ‘호적초본과 같은 가계담’이라는 등은 ‘전’문체의 필수적인 특성에서 온 것인데, 이에 대한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마치 바다 건너 남의 말하듯이 작품의 가치를 격하시켜 놓았으며,

5) 또한 문체와는 관계가 멀지마는 식민 문학관에 젖어서 문화전달의 공도를 혜아리지 못하고, 동양 3국에서 傳奇小說의 발생 始期를 유독 우리만이 15세기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위의 1), 2), 5)에 대하여는 필자 나름대로 이미 논급한 바가 있으며, 특히 5)에 대하여는 지준모, 임형택 제씨의 탁견도 발표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문제들은 할애키로 하고, 나머지 3)번과 4)번 문제를 짐 중적으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문 문체는 실용적인 목적과 일과 대상에 따라 산문만 110여 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전’체는 〈史記〉 열전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立傳의 동기는 어떤 개인의 사적이 인간에게 크게 유익한 일을 하였을 때, 그 신분에 관계 없이 이를 표창하여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지어지는 갈래였다. 그 표창과 교훈의 기준은 시대의 사조와 지배세력들의 필요로 하는 이념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전’의 특성인 개인중심성과 표평성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 고소설의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지어진 고소설은 유가적인 덕목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춘향전」의 貞節과 「심청전」의 孝와 「유충렬전」의 忠이 ‘전’체 소설의 주제가 된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은 勸善懲惡의 주제를 벗어난 소설을 쓰고자 할 때는 ‘기’ 계열의 소설을 지어야만 할 것이며, ‘춘향전’과 같은 ‘전’체 소설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記’문체는 ‘記事之文’으로 그 쓰이는 용도는 매우 다양하였다. (1)은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까지도 일부 쓰여져 왔으며, (2)는 营造物(亭, 廟, 樓, 臺, 溝, 塘 등)에 대한 기록인데 이는 ‘기’문체의 주맥을 이루는 것으로 끝까지 제자리를 유지하여 왔으며, (3)은 어떤 지방에 대한 기록인데 이는 〈漢書〉十志 아래 ‘지’문체로 변하였으며, (4)는 여행에 대한 기록인데 이는 주로 ‘錄’문체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로 大別되는데, 그중 고소설에 수용된 문체는 記, 志, 錄이 있다. 이때 ‘기’는 영조물에 관한 ‘기’가 아니고, 분화되기 이전의 ‘記事之文’의 記이다. 그 예로서는 「만복사저포기」, 「삼설기」 중국의 「침중기」, 「서유기」 등을 들 수 있으며, 志는 「남염부주지」, 「수성지」 등이 있고, 중국의 「삼국지」, 「수호지」 등이 유명하며, 錄은 「용궁부연록」을 비롯하여 10여 편의 ‘몽유록’과 假文小說인 「천군설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기, 志, 錄 가운데서 특히 꿈을 빙자한 순수 창작 소설은 ‘夢’자류 소설로 파생하였다. 그 실례로서는 唐시대의 「침중기」가 元시대에 와서는 「황량몽」으로 변신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記계통의 소설, 즉 기, 志, 錄, 몽 등 소설의 특징은 ‘전’체 소설에 비하여 창의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구성적인 면에서 시간적

으로 逆順行 구성을 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어떤 곳을 다녀오는 往環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고소설의 통폐로 여기고 있는 이른바 “천편일률적인 권선징악이나 출생담, 결말행복”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중심의 창작소설이 대부분이다. 이를 ‘전’소설의 특징과 대비하면서 우리 고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부각시킨다면 우리의 고소설은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문 학자들은 이 문체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종래 고소설에 대한 왜곡된 研究視角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 고소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定義는 서급히 불식해 버리고 새로 올바른 定義를 세워야 할 것이다.